

박삼구 회장 금호그룹 재건 '초읽기'

채권단, 금호산업 인수가 7228억...오늘 가격 통보 박회장 제시가와 181억 차이...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자금마련 숙제...4000억원대 금호고속 매각 급물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6년 만에 실질적인 그룹 지배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55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박 회장에 제시할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 인수가격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대한 찬반을 취합한 결과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를 표시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박 회장에 21일 가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그간 보여 온 그룹 재건을 향한 의지와 노력을 감안하면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는 가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인수자금 조달 등 변수가 있지만 연내 금호산업 인수 작업을 끝내고 수익성이 악화된 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그룹 재건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 6년만에 다시 금호아시아나 품으로=박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최대주주로 복귀하는 건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회생)' 돌입 이후 6년 만이다. 박 회장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대한항공을 인수해 잇따라 성사시키며 금호아시아나를 재계 7위까지 키웠다. 그러나 10조원이 넘는 두 번의 메가톤급(초대형 M&A)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외부 차입이 큰 화를 냈다.

그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이상 워크아웃),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이상 자율협약) 등 주요 계열사들이 2010년 초부터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박 회장이도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채권단 출자 전환 및 감자 등으로 그룹 지배주주 지위와 경영권도 모두 내놨다.

워크아웃 5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기간이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항공을 재매각하고 알짜 계열사인 금호엔터카와 금호생명도 팔아야 했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과는 대형

M&A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금호석유화학도 계열 분리됐다.

채권단 관리체제에서도 위기 국면이 적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호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워크아웃이 좌초되고 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와 맞닥뜨렸다. 박 회장은 그러나 2012년 말 3330억 원(금호산업 2200억원, 금호타이어 1130억원)의 사재를 털어 넣는 '자본 확충'에 나서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했다. 결국 지난 해 말 금호산업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경영정상화에 성공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졸업했다.

◇남은 과제는 인수자금 조달...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제 시장의 관심은 박 회장이 7228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가 소유한 금호고속 지분 100%를 칸서스파트너스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칸서스KIB'에 매각해 금호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는 IB업계는 5월 박 회장이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금호고속을 4150억원에 사들이는 점을 감안해 매각금액을 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회장과 칸서스파트너스는 칸서스

파트너스의 금호고속 인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회장이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금호고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갖게 된다. 박 회장 측은 지배구조의 가장 하단에 있는 금호고속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호고속은 금호타이어가 100% 소유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지분은 아시아나항공이 100% 갖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금호산업(30.08%) 외에도 금호석유화학,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이 나눠 갖고 있어 이들이 금호고속 매각대금의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

금호고속 매각대금 약 4000억 원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B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양도받을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파업 '잠시 멈춤'

이달 말 노조 집행부 선출때까지...오늘 현장 복귀

직장폐쇄 해제...파업 재개는 새 집행부서 결정할 듯

금호타이어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위해 파업을 잠시 유보하기로 해 금호타이어 분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사측도 이에 따라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는 2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36일만이며 이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16일 만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 중단이 파업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실과 이미지 훼손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일 오전 임시대의원 회의를 열어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한 달 넘게 벌여 온 전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 집행부 임기가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집행부 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업을 잠시 중단, 선거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 일정 등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선거 관리 체제 아래에서도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현 집행부가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업 재개 여부는 신임 집행부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과 선거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파업을 잠시 중단한다"며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면 파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과 조업 복구 의사를 공식 통보받고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했으며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측은 일단 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에 대해 반기고 있지만 파업 종료가 아니라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중단은 다행스럽지만 단체교섭이 해결되지 못하고 노조가 선거체제 돌입하고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면 단체교섭이 자칫 더욱 장기화할 소지도 있다"며 "회사 손실 회복을 위해 파업 중단이 아닌 종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경제 위해 노사분규 타결을"

광주상의 호소문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호타이어 등 대형사업장과 시내버스 노사분규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광주 대형사업장과 시내버스의 노사분규로 경제활성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최장기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수천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4년 연속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결정하면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노사분규는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강성 노조 이미지가 대외로 확산, 향후 기업 유치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뉴 스포티지 1호차 주인공은 1세대 네이밍 참가자 기아차는 지난 18일 서울 압구정동 기아자동차 사옥에서 김창식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세대 스포티지의 차명 기획에 참여한 민은정(사진 왼쪽) 인터브랜드 코리아 상무에게 'The SUV, 스포티지' 1호차를 전달하고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증정했다. <기아차 제공>

광주은행, 학교 찾아 '금융교실'

초·중·고 5곳과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1사 1교 금융교육'에 발맞춰 광주은행 경영로직들을 비롯한 5개 지점과 광주지역 5개 초·중·고등학교가 금융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 25개 영업점과 광주·전남 25개 학교간의 결연을 대표한 협약식으로 앞으로 광주은행은 이들 학교에 찾아가 지역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금융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진용섭 금융감독원장, 박용찬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김한 광주은행장, 고려중학교 등 광주지역 5개 교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진용섭 금융감독원장은 "1사 1교 금융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은행과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결연이 1사 1교 금융교육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 금융소비자로서 올바른 금융생활을 향유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찬 금융교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2	14 15 24 27 32	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91,158,625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4,511,290	56
3	5개 숫자일치 1,330,824	1,873
4	4개 숫자일치 50,000	89,414
5	3개 숫자일치 5,000	1,452,28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나는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차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량하고 저렴한 배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